

대학 교양 글쓰기와 문해력

윤예영*

<차례>

1. 서론
2. 강의실 밖의 디지털 문해력
3. 강의실 안의 아날로그 문해력
4.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대학의 교양 글쓰기를 수강하는 학생들이 글을 어떻게 읽고 쓰는지 살펴보고, 여기에는 어떤 문제가 있으며,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교양 글쓰기 수업이 놓여 있는 매체 환경을 살펴보고 이 속에서 글쓰기 수업을 구성하는 주체의 매체 사용 능력, 즉 문해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본다.

그 결과 강의실 안과 밖의 사례 모두에서 학생들이 복잡한 사태를 단순화하여 이해하거나 전체의 맥락을 파편화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언어의 중요한 두 축인 유사성과 인접성의 파괴로 설명할 수 있다. 계산 가능한 언어의 추구, 언어의 파편화는 자동화 사회의 새로운 언어학적 질병이다. 이러한 변화를 인정한다면 교수자는 기존의 아날로그 문해력만을 고수할 수 없다. 학습자를 새로운 언어를 쓰는 부족, 외국어 화자로 생각하고, 그들과 리터러시를 교환하고, 번역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교양 글쓰기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강의실은 디지털 매체와 아날로그 매체가 충돌하고, 인간과 인간, 인간과 기계가 상호 협동하는 포스트휴먼 공간이다. 자동화 사회는 매체 사용자에게 노동과 생존을 과업으로 부과한다. 이에 강제되는 언어가 명확하고 투명하며 계산 가능한 언어이다.

* 충북대 국어국문학과 강사

따라서 교수자의 역할은 종전의 인문주의 글쓰기 수업에서와 같을 수 없을 것이다. 학습자의 문해력을 언어학적 질병으로 진단하고 처방, 계몽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포스트휴먼 사회에서 교육은 일방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사용자와 사용자의 연결, 상호돌봄을 통해 탄생하는 메타언어의 발명으로 나아가야 한다. 자동화 사회에서 인간이 인간다울 수 있는 길은 여가(optium)와 비실용을 추구에 있다. 글쓰기를 지렛대로 삼아 자동화된 언어를 언어의 ‘잉여’로 방향 전환해야 한다.

□ 교양, 글쓰기, 교육, 문해력, 미디어, 리터러시, 자동화 사회, 언어학적 질병, 메타언어, 비실용, 여가

1. 서론

대학 교양 강의실의 주체는 누구인가? 교수자와 학생이다. 그러나 과연 이들이 전부일까? 학생들은 강의실에 앉아서 각자의 스마트 기기로 원하는 자료를 즉석에서 검색한다. 각종 고전 원문, 번역본 등 방대한 자료가 축적된 사이트에 접속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한문 수업 시간에도 옥편보다는 스마트폰의 한자 사전을 이용해서 모르는 한자를 쉽고 빠르게 찾을 수 있다. 컴퓨터와 인터넷은 보고서를 작성, 편집하는 과정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다. 교정·교열·표절 검사에까지 글쓰기의 전과정에 개입된다. 그렇다면 문학 창작은 어떻게? 이해와 비판, 창의력과 감수성은 인간의 고유한 능력으로 여겨져 왔던 만큼 창작은 아직 인간만의 것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놀랍게도 실용문 창작뿐만 아니라, 시, 소설, 수필의 창작에서도 인공지능이 인간과 협력하고 있다.¹⁾

1) 작년에 GTP-3(인공지능 작문 프로그램)와 인간이 협업하여 시와 수필, 이야기를 공동으로 창작 발표한 데 이어, 최근 국내의 포털 기업도 시를 쓰는 AI를 선보였다. “시 쓰고 그림 그리고... 예술영역 넘보는 AI”, 서울신문, 2022.08.02.

글쓰기의 자동화²⁾는 더 이상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다. 인간은 이미 기계와 협력하여 글을 쓰고 있다. 그렇다면 언젠가 기계가 인간보다 글을 더 잘 쓰는 날이 오지 않을까? 만일 학생 중에 누군가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오히려 희망적일 것이다. 그나마 누군가는 아직 글쓰기와 읽기에 조금이나마 관심이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이다. 교양 글쓰기 교수자는 차라리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더 자주 들어보았을 것이다. 재미있고 유익한 볼거리가 많은데 왜 이렇게 어렵고 지루한 글을 읽어야 합니까? 이렇게 긴 글을 언제 다 읽나요? 고전(古典)과 인문학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됩니까?

교수자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의 대학 신입생들은 교육부 권장 중등 교육 지정 한자의 절반도 익히지 못한 상태에서 대학에 들어오고 있다. 그러니 한 학기 교양 수업으로 한자 문맹(文盲)을 면할 정도면 성공적인 수업이라 할 만하다. 더욱이 문해력 문제는 한문 수업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성인의 실질 문해력 저하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지목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³⁾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이나 논문 독해도 어려워하는 마당에 학생들에게 고전은커녕 현대문학을 읽고 감상하게 하기도 쉽지 않다. 그러니 무엇을, 어떻게, 왜 읽고 쓸 것인가는 교수자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다.

문해력(文解力)은 리터러시(literacy)의 번역어로서, 문맹(文盲)에 대조되는 개념이다. 과거에는 문해력보다는 문식력(文識力)으로 번역되었다. 좁은 의미로 글자를 읽고 쓸 줄 아는 능력을 말하며, 넓게 보면 구술성

2) 베르나르 스티글러, 김지현 · 박성우 · 조형준 역, 『자동화 사회 1 : 알고리즘 시대 인문학과 노동의 미래』, 새물결, 2019, 109~150쪽.

3) 박화춘, 「성인의 기본역량과 기술 활용 정도가 니트 경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성인계속교육연구』 13(2), 2022, 49쪽.

안해정 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V): 문해교육 실천 전략』, 2021, 22~23쪽.

황혜진, 「OECD 성인역량조사결과에 나타난 세대 간 문해력의 차이」, 『통일인문학』 61,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인문학연구원, 2015, 587쪽.

(orality)의 상대어로서 문자성, 문자문화의 특성을 가리킬 때도 리터러시라는 말이 쓰인다.⁴⁾ 그러나 오늘날 문해력의 ‘문(文)’은 전통적인 의미의 문자 매체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문자뿐만 아니라 구술, 영상, 디지털 등 다양한 매체, 그리고 이를 통해 이루어지는 커뮤니케이션, 이러한 커뮤니케이션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지는 제도와 에피스테메의 문제까지 범위가 확장되었다. 미디어 리터러시, 데이터 리터러시라는 용어의 등장은 문해력의 ‘문(文)’이 모든 종류의 매체, 데이터의 차원으로 확대되었음을 드러낸다.

지금까지 대학의 글쓰기 교양교육에 대한 많은 분석과 논의가 있었다.⁵⁾

-
- 4) 윤예영, 「스테레오타입의 매체기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29~84쪽.
- 5) 강성숙, 「구비문학 관련 강좌의 현황과 교양 과목으로서의 구비문학」,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163~201쪽; 김영희, 「구전이 이야기 ‘다시쓰기(Re-Writing)’를 활용한 자기탐색 글쓰기 교육」, 『구비문학연구』 34, 구비문학회, 2012, 185~242쪽; 김보현, 황인순, 「대학 교양국어교육의 고전문학 텍스트 활용 연구 - 비평적 글쓰기를 위한 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7, 31~54쪽; 김정은, 「설화의 서사적 질문과 반응을 활용한 자전적 글쓰기의 과정과 의의 - MMSS 자기서사진단지를 활용한 대학 교양글쓰기 수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 『문학치료연구』 62, 한국문학치료학회, 2022, 9~62쪽; 김중철,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국고전문학교육의 과제」,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5~30쪽; 류인태, 「데이터 기반의 고전 읽기 교육 - ‘논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인문학 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8(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43~73쪽; 송효섭, 「고전문학의 위기와 담론 쇄신의 실천」, 『한국고전연구』 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37~158쪽; 송효섭, 「고전의 소통과 교양의 형성」, 『한국고전연구』 3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5~28쪽; 신상필, 「대학 교양으로서의 한문교육과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31~54쪽; 이상봉, 「2022년 대학 교양한문 강의 목표와 교재 구성에 대한 일고」, 『漢文古典研究』 44, 한국한문고전학회, 2022, 89~114쪽; 이수근, 「인문교양으로서의 고전시가 강좌의 한 예」,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123~161쪽; 정선희,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문학의 역할과 의의 - 고전소설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397~426쪽; 정중현, 「국어교과서와 (국)문학 이데올로기 - 4차 교육과정기 국어교과서의 ‘국문학사’ 인식 및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1, 279~307쪽; 조현우,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 모색과 교양교육」,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

그러나 대부분의 논의가 기존의 문자문화 중심, 아날로그 미디어 중심의 사고에 머무르고 있다는 점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 교수자도 학생도, 강의실도 진공상태에 고정된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강의실은 인간 뿐만 아니라 기계와 다양한 매체가 함께하는 포스트휴먼 공간이다. 문자문화의 관점만으로 디지털 세대와 소통을 시도한다면, 디지털 세대의 문해력은 학습 부진이나 실패로 진단될 수밖에 없다.

글을 읽고 쓰는 것, 교수와 학습, 지식의 생산과 수용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강의실을 서로 다른 매체 사용의 집단이 만나고 충돌하고, 소통과 대화하는 공간으로 본다면, 소통 불가능성의 책임을 한쪽 집단에게만 물을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문해력의 문제는 변화된 미디어 환경을 반영하여 이렇게 다시 던져야 한다. 요즘 세대는 정말 문해력이 부족한가? 부족하다면 ‘어떤’ 문해력이, ‘어떻게’ 부족한가? 더 나아가 자동화 시대에 인간은 어떤 글을 읽고 써야 하는가? 이러한 질문에 인문학 연구자이자 고전 전공자인 우리는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까?

본고는 확장된 문해력의 개념에 기반하여 학생과 교수자의 관계, 그들이 함께 만드는 강의실의 변화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교양 글쓰기 강의실을 디지털 문해력과 아날로그 문해력이 충돌, 교환되는 포스트휴먼 공간으로 정의한다. 그리고 이에 맞는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인지 반성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전연구학회, 2010, 55~82쪽; 최윤정, 「논어·맹자를 활용한 대학 인문 고전 교양교육 사례 연구」, 『東洋文化研究』 22,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5, 197~231쪽; 한세해, 「고전서사문학을 활용한 전문대학 교양교육 방안」, 『한국고전연구』 55,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259~293쪽.

2. 강의실 밖의 디지털 문해력

모든 매체는 연결되어 있다. 정확히 말하면 다매체 사회에서 한 명의 매체 사용자는 다양한 매체 공간을 관통한다. 그래서 하나의 문해력만으로 는 살아갈 수 없다. 지식과 교양은 기초에서 고급으로 단계적·선조적으로 만 심화되는 것이 아니다. 학생들이 대학의 안과 밖, 그 안에 펼쳐져 있는 다양한 매체-장(場)을 통과하면서, 여러 매체를 동시적·다중적으로 교차·비교·혼합해서 사용한다.

다음은 온라인 공간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디지털 문해력의 양태이다. 첫 번째 사례는 인터넷 뉴스 게시판과 소셜네트워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논쟁적 담화이다. 어느 날 한 의사가 의사와 의대생 전용 온라인 커뮤니티의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이 다른 소셜미디어에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원글의 제목은 <중증은 죽는 걸로 묵시적인 사회적 합의가 되어 있는 거 아니냐>, 본문 <동물진료비보다 적게 내면서 살려내라는 건 말이 이상하지 돈도 적게 내니까 목숨값도 개보다 못한 걸로 합의가 된 거 아닌가>라는 비교적 짧은 글이다.⁶⁾

이 글을 <가>, 글쓴이를 A라고 하자. 소셜미디어 사용자 B는 <가>의 내용을 그대로 둔 채 원글이 올라온 게시판과 조회 수, 독자들의 반응(공감, 비공감) 등을 편집하여 마치 있는 그대로 <가>를 캡처한 것처럼 이미지 파일을 올리고, “아산병원에서 간호사가 응급수술을 못받고 죽어서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있는 와중에 의사 커뮤니티에 올린 글... 좋아요 30개 참담하네”라고 자신의 글을 덧붙여 소셜미디어에 전파했다. 이 글을 <나>라고 하자. <나>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되자마자 높은 조회 수, 리트윗, 좋아요 등의 반응을 얻으며 급속하게 확산이 되었다. <나>는 <가>를 단순히

6) 이 글이 올라온 날(2022년 8월 1일) 한 간호사가 자신이 일하던 병원에서 지병을 치료를 받던 중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스크랩, 전달한 것만이 아니라 편집, 조작했기 때문에 별개의 글이다.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많은 사람에게 실시간으로 전파되는 데에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통상적으로 한나절에서 하루 정도면 이를 읽고 반응을 남기는 구독자의 수가 수천 명에 달하고, 단순히 노출되는 수는 그의 몇십 배에 달하기도 한다. 이처럼 타임라인(timeline)에서 여러 사람이 공통의 주제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화제성이 형성되는 것을 일종의 플로(flow, 흐름)라고 부른다. 이는 입소문의 전파 양상과 매우 유사한데, 소셜네트워크에서는 파급의 범위가 매우 넓고 속도가 빠르다는 점이 다르다.

각각의 글이 인터넷 공간에서 창작, 게시, 공개된 시점은 <가>가 <나>에 선행한다. 그러나 <가>는 폐쇄된 커뮤니티에 한정된 독자들에게만 게시되었던 반면, <나>는 훨씬 규모가 큰 글로벌 플랫폼에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었다. B는 <가>를 인용하여 <나>라는 새로운 글을 편집, 조작, 전파하여 ‘A라는 의사는 간호사의 죽음을 조롱한 반인류적인 글을 쓴 의사이다’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이는 많은 이들에게 비난을 불러일으켰는데, 이러한 반응을 온라인 공간에서는 일명 ‘조리돌림’이라고 부른다. 이후 B가 A의 <가>를 조작하여 <나>를 썼다는 것을 고발하는 새로운 글에서부터, B의 이야기에 반대하는 글에 이르기까지 무수히 많은 텍스트가 복제, 변형, 생산된다. 사건의 경과는 B의 주장처럼 단순하지 않았고, <나>는 일종의 ‘조작글’이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플로가 잠잠해진다.

주목할 것은 B가 타인의 글을 편집, 조작하여 새로운 글을 쓰는 과정에 복잡한 사태를 추상적인 주제로 단순화하거나, 전체에서 일부만을 떼어서 파편화했다는 점이다. 부분적인 것을 전체로 확대하거나, 반대로 전체 중 일부를 떼어내는 것은 과도한 은유로서, 온라인 공간에서 매우 흔한 어법이다.

<나>가 과도한 은유를 사용함으로써 유사성에 기대고 있다면, 이에 반응했던 사용자들은 반대로 과도하게 유사성이 억압된 것으로 보인다.⁷⁾ <가>에서 ‘동물진료비보다 못한 의료비’라는 말은 정말로 인간의 목숨값이

개보다 못하다는 것이 아니다. 그 정도로 의료 수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그로 인한 폐단이 크다 뜻을 전달하기 위해 사용한 일종의 비유이다. 그러나 일부 사용자들은 이러한 수사법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예 이해를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 직유와 과장을 직설법으로 받아들이는 독해에서 뿐만 아니라, [A=병원비에 따라서 환자를 차별하는 의사=나쁘다]로 단순한 환유적 연쇄로 독해하고, 한 명의 의사의 문제를 의료진 전체의 문제로 확장한다는 점에서도 환유적 사고를 엿볼 수 있다.

의사 부족의 사태가 의료 수가 문제와 전혀 관련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관련 종사자나 해당 이슈에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사정을 알기 어렵다. 또한 사건 당일 해당 병원의 상황, 환자의 상태 등의 정보도 일정 범위의 사람들만 알 수 있다. 동종업계 종사자들로 구성된 폐쇄된 커뮤니티에서 발화리는 것은 그만큼 공유되는 맥락을 생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조를 담은 냉소가 생명의 급을 나누는 패륜적인 모욕으로 과격하게 오독될 수 있는 곳이 바로 온라인 공간이다.

7) 러시아의 언어학자 로만 야콥슨은 실어증을 언어의 중요한 두 축인 선택과 결합의 차원에서 접근했다. 화자와 청자는 “미리 생성된 표현들의 정리함”, “미리 예상되고 제공되는 가능성들의 집합”을 공유하며 이를 공통 약호(code)라고 한다. 발화는 이 공통의 약호에서 특정한 음소, 어휘, 표현 등의 언어학적 단위를 선택하면서 이루어진다. 선택된 단위는 파편화된 상태로 발화되는 것이 아니라 한 어절, 단어, 문장으로 결합된다. 선택과 결합의 능력 중에서 선택이 억압될 때, 페르플레이즈, 번역, 전환, 대치, 압축, 은유, 범주화 등 메타언어 능력이 손상을 입는다. 반대로 결합이 억압된다면 문장화, 담화화가 어려워지며, 언어를 제대로 결합하고 분해할 수 없다. 야콥슨은 전자를 유사성 장애, 후자를 인접성 장애라고 불렀다. ‘장애’라는 명명에서 알 수 있듯이 유사성 장애와 인접성 장애는 실어증이라는 병리적인 현상의 두 양상이다. 그러나 선택과 결합은 병리적 언어 현상에서뿐만 아니라 언어의 기본적인 원리이므로, 이 두 가지 원리의 강조와 억압은 문화 유형, 성격, 언어적 스타일을 결정하기도 한다. 즉 단순히 치료, 교정해야 하는 대상라기보다는 언어학적, 시학적, 문화적 원리로 볼 수 있다.

로만 야콥슨, 신문수 편역, 『언어의 두 양상과 실어증의 두 유형』, 『문학 속의 언어학』, 문학과지성사, 1994, 96~116쪽.

이러한 오독은 논쟁이 확대될수록 심화한다. 온라인 공론장은 처음에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주체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고 그만큼 다양성이 풍부해질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받았다. 그러나 초창기의 이러한 낙관적 전망과는 달리 실제로는 비슷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끼리 모이고, 사용자들의 인지 편향이 더욱 강해지며, 비슷한 종류의 언어들(복사, 확대되는 등) 정반대로 흐르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가>와 <나>, 잇따르는 여러 디지털 텍스트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독해하기 위해서는 역으로 생략된 맥락을 보충해야 한다. 보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하고,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수단이 확보되어야 하며, 무수히 많은 허위 뉴스 속에서 그렇지 않은 것을 선택, 재배열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정보를 비판적으로 따져볼 필요성, 의지와 책임감, 윤리적 의식도 있어야 한다.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 공간에서의 리터러시는 이 모든 것을 포괄한다.

이러한 양상은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 기반의 텍스트에서는 대부분 그대로 반복된다. 의사소통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의미 전달과 맥락 파악이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언어가 바로 지시적 언어이다. 이러한 의미작용이 파괴된 공간을 ‘실용성’이나 ‘합리성’과 연결 지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언어 가운데 가장 고차원적 언어인 시적 언어, 문학 텍스트는 온라인 공간에서 어떻게 생산, 수용될까?

다음 사례는 소셜미디어의 한 사용자가 루원의 소설을 다시 읽기 한 사례이다. 이 글은 총 15개의 트윗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초의 트윗은 3,080회 이상 리트윗이 되었다.⁸⁾ 리트윗은 이 트윗을 보고 적극적으로 반응한

8) 사용자 최**** @c*****는 <다>를 작성하기 이전에 먼저 자신의 타임라인에 올라온 중국 관련 소식을 읽고 그에 대한 반응으로 “저번에는 산골마을에서 인신매매도 발각 되가지고 큰일 났는데 중국 왜 자꾸 이러냐”라는 트윗을 작성한다. 이 트윗에 대해 그의 트윗을 구독하는 구독자들이 관심을 보이자, 본격적으로 ‘저번에는’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시작한 것이다.

수신자를 표시하므로, 단순하게 해당 트윗이 노출된 횟수는 훨씬 많을 것이다. 루선의 소설을 다시 이야기한 부분은 전체 타래에서 여섯 번째부터 시작된다. 각색한 이야기는 다음과 같다. 사용자가 사용한 어휘, 플랫폼을 최대한 살려서 요약했다.

〈다〉 ‘작가가 자기 집에서 일하던 아주머니가 어떻게 되었는지 궁금해하던 중 오랜만에 집에 돌아오니 구걸을 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아주머니를 만나게 되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일을 할 때 정신을 놓고 일해서 [실수를 했기 때문에] 작가의 집에서도 쫓겨났다. [쫓겨난 아주머니에게] 어떤 오지랴이 넓은 사람이 절에 문뜰을 시주하면 죽은 남편과 자식을 만날 수 있다고 알려주었다. 아주머니는 이를 믿고 전 재산을 기부하여 저지가 되었다. 작가는 이러한 사회 분위기와 풍습이 싫었고, 자기 아버지, 어릴 때 친구의 태도가 싫었다.’⁹⁾

이어지는 네 개의 트윗에서 이 이야기의 저자가 바로 중국의 소설가 루

9) 사용자 최**** @c*****의 트윗은 총 14개로 구성되어 있다. 이중 루선의 소설과 관련된 트윗 6~9까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트윗 6】 소설의 내용은 대충/울 집(작가집)에서 일하던 그 아주머니는 어디갔나/내가 오랜만에 본가에 오니 그 아주머니가 구걸을 하고 있었다/매일 거기서 흐느끼며 내 아이가 내 남편이/이러면서 원래 여기로 시집을 왔다가/남편이 죽어 과부가 됐는데/시아머니가 날 저짜 산골에 팔았다 【트윗 7】 그래도 다행히 그 사람은 정말 좋았는데/아이도 낳고 내 아들도 예뻐하며 살다가/다 죽었다 이게 다 내 과업이라 믿고/다시 여기로 돌아왔다 나에게 한푼 좀 다오.../이러면서 계속 같은 얘기로 중얼거린거임//그리고 쫓겨난 이유가 맨날 정신 놓고 일해서/사정 딱해서 봐주다가 결국에는 【트윗 8】 큰 잘못해서 쫓겨난거임/근데 거기서 오지랴 넓은 다른 아줌마가 너가 시주팔자가 안 좋아서/저 절에다가 문뜰을 하나 사서 기부해 해!/그러면 사람들이 너를(문뜰을) 밟으면서 시주팔자가 퍼져서/다음 생에는 좋을거!!!라는 말에/자기가 갖고 있던 돈 다 가져다가 기부하고 저지 된거임 【트윗 9】 이 작가는 저런 위아래가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싫었었음....저런 풍습도...너무 별로고/특히 아버지는 맨날 뭐하라 뭐하라 하는것도 싫었고/보면 어릴때 자기랑 친구였던 친구도/커서는 자신이 작가의 종인듯 깽뚫하게 어르신 대접하는게 너무 싫다는 내용도 있음

원임을 밝히고, 당시의 중국 사회가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는 후일담, 앞서 언급한 뉴스, 자신이 언급한 루쉰의 소설 각색은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바란다는 마무리로 타래는 끝난다.

사용자가 루쉰의 이야기를 마치 전기수가 이야기를 강독하듯이 실시간으로 기록으로 진행되는 것도 흥미롭지만 주목할만한 것은 이 이야기는 루쉰의 소설을 거의 재창작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하게 변형했다는 점이다.¹⁰⁾ 소설 원작에서는 작가(‘나’)는 서술자인 동시에 아주머니(‘상린댁’)를 관찰하고 그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를 아주머니 본인을 비롯한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 청취하여 독자들에게 플롯화하여 전달한다. 이러한 플롯화를 통해 원작의 독자는 단편소설이라는 매체를 한 시간 동안 읽으면서(텍스트 시간) ‘상린댁’의 약 40여 년에 가까운 평생의 사연(스토리 시간)을 서술자이자 관찰자인 ‘작가’가 고향에 머무르던 며칠간의 이야기로 압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반면 인용된 트윗에서는 이러한 소설적 장치들이 모두 생략된다. 원작 플롯에서 아주머니가 자살에 이른다는 핵심적인 사건까지 생략된다. 아주머니 사망의 원인이 바로 소설의 서술자인 ‘나’가 무심코 한 이야기 때문이라는 암시도 생략된다. 따라서 줄거리 전체가 심각하게 변형되었다.¹¹⁾ 사용자는 자신이 다시 쓴 이야기는 원작과는 다를 수 있고, 이는 어디까지나 자기가 기억을 제대로 못 했기 때문이라는 변명을 덧붙인다. 따라서 이러

10) 생략된 1-5까지의 트윗은 중국의 극우 보수 성향의 유명 틱톡(tiktok, 짧은 형식 비디오 플랫폼으로 유튜브보다 더 짧은 1분 이내의 영상들이 주로 올라온다) 사용자들이 틱톡 생중계 중 중국 오지의 인신매매의 피해자를 목격하면서 중화민국의 전통적 가치에 대한 의심을 하게 된다는 내용이다. 루쉰의 소설 제목 『복을 비는 제사』을 정확하게 언급하지는 않았다.

11) 원작에서 서술자 ‘나’는 ‘상린댁’을 마을 어귀 개울가에서 만나는데 많이 배운 지식인인 ‘나’라면 사후 세계가 있는지를 알 것이라는 ‘상린댁’의 질문의 맥락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가 기대한 것과는 반대되는 답을 한다. 이것이 기록제가 되어 ‘상린댁’이 자살했음이 소설에는 암시되어 있다.

한 줄거리의 변형과 왜곡을 단순한 기억상의 착오로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용자는 루선의 소설을 단순한 서사적 재미를 위해 각색한 것이 아니다. ‘중국에는 과거부터 인신매매라는 악습이 있었다’라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기 위해 소설을 사례로 활용한 것이다. 즉 루선의 소설을 자신 주장의 근거와 예시로 사용했기 때문에 루선의 원작 줄거리나 소설적 장치를 살리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자신의 주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거나 해석이 상충하는 부분은 불필요하므로, 과감하게 생략할 수 있었던 것이다.¹²⁾

이처럼 <다>의 사례에서도 <가>와 <나>에서와 마찬가지로 유사성의 과잉, 인접성의 파괴 양상을 읽어낼 수 있다. 특히 서술자의 어린 시절의 친구가 자신을 주인(어르신)처럼 대했다는 부분은 이 소설(『복을 비는 제사』)이 아니라 루선의 다른 작품(『고향』)의 내용이다. 서로 다른 두 작품을 하나의 서사로 뒤섞고 있는 것이다. 사용자는 루선 소설의 이야기들을 ‘고향에 돌아간 작가인 ‘나’가 중국의 전통적인 악습에 환멸을 느끼는 이야기’로 모두 환원한다.¹³⁾

은유나 언어적 상징을 해석하지 못하고, 주제를 과도하게 환원한다는

12) 물론 이러한 생략, 왜곡은 아날로그 미디어와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 사이의 물질적 제약의 차이에서도 비롯된다. 예를 들어 소셜네트워크의 경우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타임라인, 140자로 제한된 텍스트의 길이는 수신자의 한정된 주목을 포착해서 제한된 시간 안에 그 주목을 유지해서 이야기를 끝까지 들을 수 있게 하는 방향으로 리더시를 발전시켰다.

윤예영(2019), 앞의 논문, 37~84쪽.

13) 이 이야기 타래의 후반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트윗 12】 이런 내용을 쓰신 작가는/아Q정전을 쓰신 루선이심/아Q정전도 좀 그런게/저 아페이(아큐 아님)이 저 이름의 발음이 없어서 당시 쓰던 병음 표기를 따라서 아Q라고 쓴건데/이름이 표기가 없던 이유는 저 사람이 소수민족 출신(이라 말하지만 사실은 청나라부터 있었던 여진족 후예?인가 그런거임)/【트윗 13】 당시 사회적인 그 분위기를 정말 관통을 잘함/하지만 결국 교육상 금지 시킨 이유가/중국의 풍습이 아직도 그 구시대때와/거의 똑같은 부분이 많으니.....【트윗 14】 저의 심심풀이 노가리가 췌...알티를 타는군요./여러분 이 사건의 과정은 저의 기억에 의존 되어있는 췌풀이니 부디 정확한 정보는 뉴스와 신문기사를 찾으셔서 확인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점에서 이는 일종의 유사성 장애이다. 또한 어떤 주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 될 수밖에 없는지 작품의 구조와 형식, 조직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는 인접성 장애로도 볼 수 있다.

과도한 은유는 마치 낡은 비유와 같다. 낡은 비유는 관용어(idiom)나 스테레오타입, 상투어로 굳어진다. 낡은 비유는 물신화된다. 은유는 은유이지만 언어를 생산해내는 시적 언어로서의 기능이 사라진, 자동화된 언어이기 때문이다. 물신화된 언어는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일종의 자극처럼 주어진다. 읽는 사람들 역시 이를 이해하거나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반응을 할 뿐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논쟁은 매우 패턴화된 양상으로 이어지고, 생산적인 토론이 되기 어렵다. 주로 발신자와 수신자의 부정적인 정념을 자극하고, 발신자와 수신자가 강조되며, 친교가 아닌 갈등을 불러오는 언어가 된다. 그래서 정보가 낮은 비속어나 혐오 발화가 난무한다. 시적 언어는 메시지를 강조하는 의사소통이다. 이와 반대로 온라인 디지털 미디어의 주된 리터러시는 언어의 패턴화, 관습화이다. 따라서 메시지가 아닌 코드가 강조되는 언어이다. 결국 온라인 공간의 낡은 비유는 시적 언어가 아닌, 언어의 물신화, 밈(meme)¹⁴⁾이 된다.

흔히 요즘 학생들이 긴 글을 끝까지 읽지 않거나, 아예 건너뛰거나, 제대로 읽지 못하는 것은 과도한 인터넷 사용 때문이라고들 한다. 즉 디지털 매체의 이용이 문해력 저하의 원인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해석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왜냐하면 이러한 인과관계는 입증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문해력은 평가되기 이전에 기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정한 매체의 관점에서 보면 다른 매체의 문법은 논리적인 오류, 무능력, 기능 부전으로까지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대상을 교정하고 신장, 계몽해야 하는 대상으로 본다는 것은 일종의 가치 평가이다. 디지털 텍스트는 아

14) 윤예영(2019), 앞의 논문, 76쪽.

날로그 문해력만으로 독해할 수 없다. 한국어로 쓰였을지라도 별도의 문해력이 작동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디지털 공간에서 교수자와 학생의 문해력은 역전되기도 한다. 문자문화에 익숙한 세대는 온라인 텍스트 앞에서 디지털 문맹이나 다름이 없다. 반대로 강의실에서 문해력이 낮게 평가되는 학생도 인터넷 세계에서 는 얼마든지 수많은 독자를 거느리고 큰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3. 강의실 안의 아날로그 문해력

글쓰기 교양 과목의 수강자들 대부분은 소위 말하는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 즉 태어날 때부터 온라인, 디지털, 영상 미디어로 말과 글을 배운 세대이다. 이들의 문해력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부분 아날로그 세대 혹은 디지털 이주민 세대인 교수자들과는 상당히 달랐다. 이 장에서는 각 대학의 교양 수업의 사례를 통해 디지털 공간의 문해력이 아날로그 공간의 문해력에 어떻게 접합되는지 살펴보고, 강의실 안의 문해력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이 문제인지 고찰하고자 한다.

1) A 대학의 사례

다음은 A 대학의 교양 글쓰기 강의 교재에 실린 지문과 이에 대한 학습 활동이다. 이 예문은 교재의 첫 번째 단원 ‘교양인의 삶과 글쓰기’에서 발췌한 것으로 오리엔테이션 수업에서 활용된다. 본격적인 읽기와 쓰기 학습을 시작하기 전에 교수자가 학생들의 평균적인 문해력을 확인하기에 적절한 수준의 지문이다. 이 지문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출제되는 비문학 지문과 비교할 때 크게 어려운 수준이 아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예상외로 글 전체의 주제나 화제를 쉽게 파악하지 못한다.

〈가〉 게다가 어제의 비극을 극복했다고 해서 오늘 더 행복해지는 것은 아니다. 조금 더 행복해지는 것이 절대적 고통을 없애는 것보다 훨씬 어려울 수 있다. 중세시대의 굶주린 농부를 기쁘게 하려면 빵 한 조각으로 충분했다. 그런데 돈은 많이 벌지만 따분하고 과체중인 엔지니어를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20세기 후반은 미국의 황금기였다. 미국은 2차 세계 대전에서 승리한 데 이어 냉전에서 승리를 더욱 굳히며 세계 최고의 초강대국이 되었다. 1960년대에서 2000년까지 미국의 GDP는 2조 달러에서 12조 달러로 늘었다. 1인당 실질소득은 두 배가 되었다. 피임약의 발명은 섹스를 전에 없이 자유롭게 만들었다. 여성, 동성애자, 아프리카계 미국인, 그밖에 소수자들이 가져가는 파이의 몫도 더 커졌다. 값싼 자동차, 냉장고, 에어컨, 진공청소기, 식기세척기, 세탁기, 전화기, 텔레비전, 컴퓨터가 홍수처럼 밀려들어 일상생활이 몰라보게 달라졌다. 하지만 연구결과들은 1990년대 미국인의 주관적 행복이 1960년대와 거의 같은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보여준다.¹⁵⁾

먼저 지문의 화제와 주제, 핵심어와 주제문 말하기 등의 활동을 한다. 학생들은 읽은 순서대로 교수자의 문답식으로 자신의 생각을 말한다. 교수는 주제문을 만들 수 있는 정도로 충분히 핵심어가 수집되었다고 판단이 들면, 질문을 주제문 만드려고 바꾼다. 학생들에게 그것이 왜 이 글의 핵심어나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기도 한다. 이때 앞 사람이 말한 단어나 문장은 제외할 것을 규칙으로 하여 최대한 많은 학생이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물론 독자가 글을 읽을 때 모든 단어와 모든 문장의 뜻을 정확히 알아야만 글의 주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위의 예문에서 ‘GDP’가 무엇

15) 〈가〉는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에서 발췌한 글로 교재에 실린 지문 중 첫 단락만 인용한 것이다.

대학 글쓰기 교재편찬위원회, 『대학 글쓰기』, 충북대학교출판부, 2018, 12쪽.

의 약자인지, ‘실질소득’이 정확히 무엇을 가리키는지 모르더라도 글 자체에서 형성된 맥락과 자신이 가진 배경지식으로 지문의 소재와 주제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정확히 어느 부분에서 이해를 하지 못하는지 파악하기 위해서는 어휘, 문장, 단락 차원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세세하게 쪼개서 질문하는 단계도 필요하다.

학생들은 어휘 독해에서부터 막힌다. 위 지문에서 ‘행복’이나 ‘고통’이 화제(topic)이라는 것은 알지만, 정작 ‘끓주린 농부’, ‘과체중인 엔지니어’와 같은 보다 구체적인 어휘가 무엇을 비유하는지 모른다. ‘소수자들이 가져가는 파이’나 다른 단락에 나오는 ‘유리천장’과 같은 관용어구를 모르는 경우도 있다. 또한 ‘끓주린 농부’가 ‘절대적 고통’을 비유한다는 사실은 비교적 쉽게 파악하는 반면, 반대로 ‘과체중인 엔지니어’는 쉽게 찾아내지 못한다. 왜 하필이면 ‘과체중인’ 엔지니어라고 했겠냐는 질문에도 답하기 어려워 한다. ‘끓주린’과 ‘과체중’이 대답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저자가 농부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왜 ‘엔지니어’를 선택했는지 추론하지 못한다. 그러나 ‘과체중인 엔지니어’와 같은 계열을 이루는 다양한 어휘나 어구로 바꿔서 말하지를 못하고, 결과적으로 그 비유들이 ‘주관적 행복’이라는 보다 추상적인 층위의 핵심어로 메타적으로 수렴되는 것도 파악하지 못한다. 언어의 주요한 축인 유사성(은유)이 억압되어 있는 것이다.

주제문으로 요약하기에서도 마찬가지로의 문제점이 보인다. 대부분 학생이 이 단락 전체의 의미를 포괄하고 있는 두 번째 문장보다는 주제를 완전히 포괄하지 못하는 첫 번째 문장, 혹은 주제문으로 삼기에는 지나치게 구체적인 수준의 마지막 문장을 주제문으로 뽑는다. 왜 그 문장이 주제문이라고 생각하는지 물어보면 대부분 ‘주제는 글의 첫 문장 혹은 마지막 문장에 있다’를 이유로 든다. 즉 주제를 직접 읽고 머릿속에서 다시 쓰는 것이 아니라, 단락 구성에 대한 항목화된 지식(두괄식, 미괄식)을 도식적으로 응용하는 것이다.

이 지문뿐만 아니라 어떤 글을 주더라도 주제와 소재를 구별하지 못하고 한 단어로 대답하는 경우가 많았다. 즉 화제를 한정하는 서술어나 수식어를 찾는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이다. 언어의 유사성이 의미의 덩어리를 적절하게 분절하여 바꾸어 말하는 능력에 관련되는 것이라면 인접성은 의미의 덩어리를 적절하게 계층화(구체화와 추상화)하는 능력에 관련된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전체 맥락에서 소재, 화제를 잘 ‘뜯어내는’ 반면, 그 화제가 ‘어떻다’라고 서술, 한정, 평가하고 화제와 서술부를 환유적으로 결합하는 사고에 취약했다.

주제는 찾는 것이 아니라 파악해야 한다. 주제 파악은 스스로 글을 읽고 머릿속에서 언어의 구체적 수준과 추상적 수준을 오고 가면서 의미를 구체화하는 다시 쓰기이다. 전체 의미 덩어리를 하나의 구체적인 문장으로 요약하기 위해서는 유사성(은유)과 인접성(환유)의 원리 모두 작동해야 한다. 그런데 소재와 주제를 구별하지 못하고, 글을 소재적인 차원으로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은하계나 성운처럼 복잡한 의미의 그물망으로 이루어진 텍스트에서, 별 하나만을 떼어서 본다거나, 아니면 성운의 윤곽만을 파악하는 꼴이다. 즉 의미를 적절하게 분절하고, 계층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뜻이다.

한 문장의 주제문으로 요약하기, 한 단락으로 요약하기는 가장 초보적인 쓰기이다. 지문에서 찾아낸 핵심어, 소주제문을 단순히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언어로 그 자체로 완결된 문장, 완결된 글이 되도록 다시 써야 한다. 쓰기는 읽기의 역방향으로 일어나는 인지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읽기에서 이미 분석과 종합, 구체화와 추상화, 은유와 환유의 과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읽기와 요약은 단순히 양적인 ‘축소’나 ‘확대’, ‘더하기’와 ‘빼기’로 계산한다. 한 단락으로 요약하기(요약문 쓰기)를 소주제문을 구체화,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각 단락의 문장들을 조립하는 데 그친다.

가장 초보적인 수준의 쓰기인 요약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

의 글을 읽고 감상, 비평하는 적극적인 다시 쓰기는 가능할까? 이 지문에 관련하여 교재에 실린 학습 활동은 지문의 주제를 파악한 뒤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기(〈나〉 ‘이 글은 무엇에 관한 글인가? 무엇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나는 이 입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글의 특징은 무엇인가 자신의 논지를 전개하기 위해 어떤 글쓰기 방법을 취하고 있는가?’)이다. 다시 쓰기는 제시문의 이해하여 주제문으로 요약하는 데에만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학습활동의 문제를 이해한 뒤 ‘절대적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과 주관적 행복을 추구하는 것 중에서 무엇이 더 어려운 일인가?’라는 식으로 바꾸어 말하는 데에도 이용된다. 자기 의견을 서술하고 논증하기까지는 이렇게 많은 단계의 읽기와 쓰기, 다시 읽기와 다시 쓰기가 필요하다.

은유와 환유는 다른 사람의 글을 이해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원리가 아니다. 자신의 언어를 적극적으로 생산하는데 필요한 언어의 중요한 축이다.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전달하는 데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평과 감상이라는 고차원적인 언어 활동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활성화되는 언어의 원리이다.

A 대학의 글쓰기 교재는 설명문과 논설문 읽기, 쓰기 위주로 짜여 있다. 〈대학 글쓰기〉의 목표가 첫째는 전공 교육을 위한 글쓰기 둘째 대학 밖에서의 글쓰기, 시민성과 교양 함양이 목적이기 때문이다. 정보 전달과 설득을 목적으로 하는 설명문과 논설문은 비교적 언어의 결이 단순한 편이다. 그런데 언어의 가장 초보적인 기능인 지시적 기능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문해력으로는 비유와 상징, 반어와 역설 등의 시적 언어를 사용하는 시나 서사를 독해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¹⁶⁾ 비평은 커뮤니케이션에서 코드

16) 생략된 주제문을 추론하여 다시 쓰는 학습 활동 가운데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지문은 심리학, 역사학, 수필(박이문, 〈길〉) 중에서 수필이었다. 다양한 인생의 과정을 여러 가지 길의 모습으로 비유, 묘사하여 인생의 역정에서 사람들이 다양한 회로

가 강조된 메타적 언어, 감상은 메시지를 강조하는 시적 언어의 생산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2) B 대학의 사례

다음은 B 대학의 교양 글쓰기 수업의 사례이다. A 대학은 종합대학이기 때문에 문·이과 전공에 따라서 문해력의 수준에 차이가 있다. 반면, 교육 대학인 B 대학은 초등교육에 적합한 통합형 인재 교육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문해력의 수준이 전공에 관계없이 비교적 고른 편이다. 또한 별도의 교재가 없어서, 학기별로 강의계획서에 따라서 강사의 재량으로 다양한 지문을 다룰 수 있다. A 대학에서 정보 전달과 논증 위주의 지문을 중심으로 읽기와 쓰기 교육을 하는 데 반해 B 대학에서는 상대적으로 시적 언어(문학 텍스트)를 교육할 여지가 더 크다. 중간·기말고사를 제외한 13주의 수업 시간에서 약 3~4회 차의 분량으로 서사를 다룬다.

시적 언어로서의 서사를 이해하기에 앞서 설명과 논증에서 서사가 활용된 지문을 먼저 다루고 비교한다. 예를 들어 논증문(〈다〉)¹⁷⁾을 다룰 때, 저자가 자신의 논지를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일상적인 사건을 이야기로 재구성해서 예시로 사용하는지 살펴본다. 다소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이론이나 개념을 설명하고 논증하는 지문이 오히려 적합하다. 또한 똑같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행동의 변화도 각각 과정¹⁸⁾과 서사로 구별

애락을 경험한다는 비교적 평이한 주제의 글이다.

대학 글쓰기 교재편찬위원회(2018), 위의 책, 118쪽.

17) 마이클 최, 허석재 옮김, 『사람들은 어떻게 광장에 모이는 것일까? - 게임이론으로 본 조정 문제와 공유 지식』, 후마니타스, 2014.

18) 〈다〉는 의사소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유 지식이 형성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논증문이다.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내가 직장 동료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 함께 있다고 상상해 보자. 버스는 오늘따라 유난히 붐비고, 우리는 따로 떨어져 서 있게 되었다. 당신은 앞문 가까이, 나는 뒷문 가까이 있기 때문에 서로 흘금거리는 것만 가능했다. 우리는 평소 내리는 정류장에 닿기 전

될 수 있으며, 언제 어떻게, 어떤 글쓰기에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인지 토론한다. 해당 지문이 ‘무엇’을 말하는가 이해하고 파악하는 단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전달하기 위해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에 주목하는 것이다.

다음 단계로 본격적으로 서사를 활용하는 문학적인 텍스트를 다룬다. 예를 들어 자전적 에세이(〈라〉)¹⁹⁾를 다루면서, 단순히 줄거리를 파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원문의 핵심적인 에피소드를 시간 순서를 뒤섞어서 발췌하여 제시하고, 사건이 발생한 시간 순서로 에피소드를 재배열해 보거나, 만약에 내가 주인공(서술자)라면 어느 에피소드부터 이야기를 시작해서 어느 에피소드로 이야기를 마무리할지, 나의 이야기와 저자의 이야기가 어떻게 다른지, 그에 따라서 어떤 서사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등을 생각해 보고 토론한다.

이의 심화 수업으로 〈라〉와 유사한 주제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서술한 이야기(〈마〉)²⁰⁾를 읽고, 이를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다시 쓰기(〈바〉)²¹⁾

에 나는 창밖에서 “어이 당신 들, 나랑 술 한 잔 하세!”하고 소리치는 동료의 모습을 보았다. 이 제안이 매우 구미에 당기지만, 차 속의 우리에게겐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점이 더 중요하다. 버스 문이 열리고, 승객들로 인해 떨어져 있는 우리는 내릴지 말지를 각자가 결정해야 한다. …(후략)…”

마이클 최, 허석재 옮김(2014), 위의 책, 24쪽.

- 19) 〈라〉는 서술자 ‘나’가 도박중독에 빠진 쌍둥이 형제를 옆에서 지켜보고 그 치유 과정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내적 결핍을 깨닫고 변화하는 성장담이다.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전략)… 그때 나는 담배처럼 도박도 ‘끊는’ 것이라고 오해했다. 내게 실망스러운 건 현이 끝없이 쌓아 올리는 거짓말이었다. 작은 거짓말을 덮으려고 큰 거짓말을 하고, 또 그 거짓말이 들끓나면 다른 거짓말로 덮는 악순환. 거짓말이 도박중독자의 깊은 병이자 증상이라는 걸 몰랐던 나는, 거짓말을 반복하는 현을 이해할 수 없었다. 애초에 거짓말을 시작하지 않으면 되는데, 왜 그 간단하고 자명한 해결책을 모를까. …(후략)…”

채샘, 『도박중독자 나의 오빠』, 글판, 2019, 80쪽.

- 20) 스티븐 킹, 김진준 옮김, 『유혹하는 글쓰기』, 김영사, 2017, 309~333쪽.

- 21) 〈바〉는 B 대학 교육학과 21학년 학생이 “다음 글을 읽고 서술자 ‘나’가 아닌 다른

를 한다. <라>가 중독자 가족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서사라면 <마>는 중독자 본인의 관점에서 진행되는 서사이다. <라>를 다룰 때에는 스토리와 플롯을 구별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것인가를 먼저 다룬 후, <마>와의 비교를 통해서 유사한 소재와 주제, 사건도 누구의 관점으로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경험하게 한다. 그리고 <마>에 등장하는 인물이나 혹은 등장할 법한 인물, 사물 등을 선택해서 그 사람의 눈으로 본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바>)를 해 보면서 시점과 서술자라는 서사 이론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가에서 ‘어떻게’ 이야

등장인물의 관점으로 이야기를 만들어 봅시다. (한 단락으로)”라는 질문에 답한 글이다.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언제였는지 명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샌가 내 몸은 마을에서 큰 편에 속했다. 여러 계절을 겪으면서 내 피부는 거칠어졌고 내 키는 옆 친구들을 훌쩍 뛰어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겨울이 지나고 봄이 되어 꽃 피던 때, 마을의 어른들이 나이가 들면 으레 그랬던 것처럼 나 역시도 숲을 떠나게 되었다. 좀 더 세밀하게 말하자면 새로운 것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과정을 겪었다. 하지만 그 과정은 내가 지켜보고 들었던 것보다 훨씬 고통스러웠다. 내 키의 반의반도 되지 않는 작은 인간들이 내 몸을 거대한 톱으로 썬는 과정에서는 너무 아팠고 내 몸에는 진액이 줄줄 흘렀다. 또한 탐스러운 내 머리카락들은 모조리 잘려 나갔다. 세월을 가진 내 거친 피부들은 사정없이 벗겨졌고 다듬어졌다. 그리고 나는 인고의 시간을 거쳐 1980년 겨울, 탁자라는 새로운 이름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전시장에서 한 남자의 집으로 보내졌다. 나는 전시장의 다른 친구들보다 값이 비싼 축에 속했는데 이 남자는 나를 보자마자 “내가 원하는 탁자가 바로 이거야!”라는 말과 함께 망설임 없이 나를 자기 집으로 데려갔다. 몸에 배어 있는 알코올 냄새가 다소 불쾌했지만 나의 웅장하고 멋진 몸의 가치를 알아주는 이 남자가 왠지 싫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했던 것 보다 그와의 생활은 나를 힘들게 했다. 그 남자는 매일 술에 취해있었다. 그뿐 아니라 시간이 지나서는 마약에까지 손을 댈 정도로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다. 나의 아름답고 웅장한 몸 위에는 먹다 남은 술잔과 각종 안주, 마약 쓰레기들이 나뒹굴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숲에서 자란 나에게 이러한 악취풍기는 것들은 너무나도 고통이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알코올 냄새가 내 몸에 가득 배고 내 위의 쓰레기들이 익숙해져갈 때쯤 남자는 변화하기 시작했다. 술을 점점 줄이고 알코올 냄새도 사라졌다. 듣자하니 알코올 중독임을 인정하고 치료를 받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시 시간이 흘러, 이 남자는 마치 본인의 지난 과오가 내 탓인 것인양, 나를 치워버려야겠다고 말을 한 뒤 집안에서 나를 내쫓았다...(<후략>”

기할 것인가로, 지시적 언어에서 시적 언어로 관심을 확장하게 한다. 즉 내용으로서의 언어가 아니라 형식으로서의 언어를 지각하게 하는 것이다.

〈사〉는 동화 〈개미와 베짚이〉, 현대적으로 각색한 동화 〈프레드릭〉, 한국의 설화 〈게을러 굶어죽은 사람〉을 읽고 비교하기 수업이다.²²⁾ 이 수업에서 중점을 두는 것은 세 이야기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커뮤니케이션의 이론에 따라서 비교 분석한 뒤에, 각각의 매체에서 어디까지가 서사적 진실이고, 어디부터 서술자의 의견인가에 대해서 토론을 한다. 마지막으로 유튜브 피로 개선제 광고²³⁾가 어떤 서사 전략을 이용하고 있는지, 현대의 광고물이 서사 전략을 통해 전달하는 이데올로기적 메시지를 동화와 설화가 전달하는 교훈적 차원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보고, 그러한 차이는 어떤 서사 전략과 의사소통의 요소로 인한 것인지 토론한다.

A 대학의 교양 글쓰기에서는 집단적인 읽기와 쓰기를 통해 실질 문해력을 향상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면, B 대학에서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 형식, 전략을 이용할 것인지, 언어의 결, 매체의 형식적 층위, 즉 미디어 리터러시를 인지하게 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삼는다. 매주 수업은 〈개별적으로 읽고 쓰기 → 교수자와 전체 학생의 문답을 통한 전체 토론 → 교수자의 텍스트 분석 → 피드백〉으로 구성되고 각 주차별 학습 내용을 최종 과제에 반영하는 프로젝트 기반 수업으로 진행한다.

은유와 환유가 언어의 보편 시학인 것과 마찬가지로, 서사, 설명, 논증, 묘사는 단순히 장르나 문체가 아니라, 언어의 메타적 차원이다. 이를 사용

22) 장 드 라 폰텐, 민희석 역, 『개미와 베짚이』, 『라 폰텐 우화집 - 상』, 지식산업사, 2004. 레오 리오니, 최순희 역, 『프레드릭』, 시공주니어, 2013, 1~34쪽.

김순태(제천시 의림여자중학교), 「게을러 굶어죽은 사람」, 충청북도 어린이도청, 충북의 문화, <https://www.chungbuk.go.kr/child/selectBbsNttView.do?key=963&bbsNo=130&nntNo=144720&searchCtgr=&searchCnd=all&searchKrwd=&pageIndex=9> (검색일자 2022.08.18.)

23) 동아제약 OFFICIAL, '2017년 신규 광고 온에어 (30s)', Youtube, 2017-03-20, <https://www.youtube.com/watch?v=csd3GODWIN8> (검색일자 2022.08.18.)

할 수 있는 능력이 곧 미디어 리터러시 즉 교양 글쓰기 수업에서 필요한 문해력이다. 스토리, 플롯, 작가, 서술자 등의 개념은 사변적인 이론에 불과한 것이 아니다. 언어라는 매체의 사용 규칙,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새로운 언어를 만들어내는 규칙이다.

마치 회화가 대상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물감, 빛, 평면이라는 물질을 탐구하고 유희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언어 매체에 역시 단순히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교환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따라서 기말에 제출하는 최종 에세이를 평가할 때도 언어의 형식과 구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가를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삼는다.

물론 이러한 프로젝트 기반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B 학교처럼 강좌당 학생 수가 적어서 교수자가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즉각적으로 파악하여 유연하게 수업을 구성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별도의 교재나 표준강의안이 따로 없는 것이 오히려 긍정적인 조건으로 작용했다. 커리큘럼 자율성이 보장되고 교수당 학생 수의 비율이 적어야만 강의와 토론을 통해서 학습한 리터러시를 한 편의 글을 계획, 집필, 수정, 탈고하는 연속적인 과정에 반영하는 실습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결론

이상으로 교양 글쓰기 수업의 문해력을 미디어 공간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는 아날로그 매체와 디지털 매체, 둘 중 어느 것이 더 우월하다고 평가하고 선언하기 위함이 아니다.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매체가 공존, 교섭, 충돌, 혼합하는 환경에서 교수자 중심의 아날로그 문해력으로는 디지털 세대와 소통하기 어렵다. 교육과 학습은 일방적인 소통이 아니다. 새로

운 지식의 생산은 교수자와 학습자 사이의 차이와 변화를 섬세하게 고려할 때 비로소 가능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양 글쓰기 수강생들이 디지털 매체에서나 아날로그 매체에서나 공통으로 보인 문제는 메시지와 지시 대상을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이었다. 메시지와 지시대상을 연결하더라도 언어의 중요한 축인 은유와 환유가 파괴되어 의미작용이 표준과 관습에 따라 기계적으로 반복, 복제된다. 한 마디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의 언어는 아날로그 문해력의 관점에서는 살아있는 언어가 아닌 죽은 언어이며, 그들은 기계보다 더 기계적인 읽기와 쓰기를 수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기계가 아닌 인간 언어의 회복일 것이다. 기술철학자 스티글러는 자본주의는 데이터 경제 속에서 ‘컴퓨터적인 것’으로 구체화하면서 점점 모순이 심화될 것이라 전망했다.²⁴⁾ 이러한 선언은 한국 대학의 교양 글쓰기 수업에서 일어나는 문제에 적용하기에는 지나치게 거시적인 담론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자동화 사회의 모순은 특정 국가에 국한된 이야기가 아니다. 자동화는 세계를 균질화, 보편화하면서, 다양하고 독특한 장소성과 주체성을 알고리즘의 통치성²⁵⁾에 예속시키는 전지구적 과정이기 때문이다.

그는 자동화 사회의 모순을 해결할 대안으로 인민의 여가(otium)를 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⁶⁾ 이처럼 자동화 사회에서 인간을 인간답게 존립

24) 베르나르 스티글러, 김지현·박성우·조형준 옮김(2019), 앞의 책, 65~102쪽.

25) 알고리즘 통치성은 아날로그 미디어보다 더 큰 소위를 초래하며, 탈-의미작용화, 인간의 정동, 지각, 정서를 기계 속의 요소처럼 기능하게 만든다.

베르나르 스티글러, 김지현·박성우·조형준 옮김(2019), 위의 책, 285~331쪽.

26) 18세기 말까지 서구에서 노동과 일의 영역은 오피움(아편opium)과 유사한 발음)과 네고티움, 즉 노예·장인·평민의 영역과 이러한 일상의 의무에서 벗어난 사제 등을 위한 영역 오피움으로 구분했다. 여가란 바로 한기함을 뜻한다. 그런데 테일러주의, 포디즘을 거치면서, 특히 알고리즘 통치성의 시대에서 전통적으로 네고티움의 영역에 속하던 것이 노동, 생산성의 영역에 속하게 되고 오피움의 영역에 속하던 놀이,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실용이 아닌 비실용, 노동이 아닌 여가라고 할 때, 글쓰기 교양 교육은 언어의 실용성이 아닌 비실용성의 회복, 언어의 경제성이 아닌 언어의 ‘잉여’의 추구에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언어의 비실용성, 언어의 ‘잉여’는 무엇일까?

지금까지 글쓰기 교육은 텍스트의 의미 파악을 우선으로 삼아왔다. 이는 곧 언어의 여러 국면 중에서 맥락(지시대상)을 강조했다라는 말이기도 하다. 반면 언어를 다른 매체와 변별되게 하는 매체의 층위, 코드와 형식은 부차적으로 다루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글쓰기에서 ‘글’은 문자매체 한 가지로 자연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오늘날 ‘글’은 더는 문자문화 시대의 ‘글’처럼 의미를 형이상학적으로 전달하는 투명한 그릇처럼 존재할 수 없다. 다양한 매체의 경합과 충돌 속에서 ‘글’은 지시대상에서 메시지로, 내용물에서 그릇으로, 의미에서 의미 생산의 규칙으로, 의도에서 언어를 둘러싼 겹겹의 층위로 중심이 이동한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껏 사용해온 ‘글’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시기이다.

대학에서 교양 글쓰기를 고전문학 전공자가 담당해야 할 당위성은 없다. 실용적인 글쓰기를 다루는 사회과학 전공자가 아닌 인문학 전공자가, 역사나 철학 전공자가 아닌 문학 전공자가, 현대문학이 아닌 고전문학 연구자 교양 글쓰기를 가르쳐야 하는 당위성은 그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분명 변별성은 있을 것이다. 언어의 비실용적인 차원, 언어의 잉여적 차원, 언어의 언어를 가장 오랫동안 다루어 온 분야가 바로 문학이기 때문이다. 문학적 의사소통의 목적은 의미 손실 없는 정보의 보존이 아니다.

체육, 연극, 예술 행위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참여, 즉 정치 등이 모두 가치 없는 것으로 타자화된다. 신자유주의적 리터러시인 그래프와 탈-의미생산의 학습은 인간을 개인화한다. 사회와 공동체의 자리를 끝벌의 군집과 같은 집단화가 대체한다. 따라서 오티움의 회복은 자동화를 가속하는 자본주의 경제가 아닌 기여의 경제를 바탕으로 의미생산을 회복에 있다.

베르나르 스티글러, 김지현·박성우·조형준 옮김(2019), 위의 책, 438~445쪽.

자동화 사회의 특징은 바로 정보를 손실 없이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의미를 계산 가능한 형태로 파편화하는 데 있다. 자동화 사회의 정보의 흐름은 부(否) 의미작용을 통해서 네겐트로피, 즉 죽음을 생산한다.²⁷⁾ 따라서 자동화 사회의 문법에 따르면 오늘날 학생들의 문해력은 문제가 없다. 오히려 애매성, 모호성, 상상력을 지향하는 문학의 언어야말로 지체된 언어이자, 자동화 사회에 반하는 언어이다.

동양의 고전과 서구 현대 철학자의 논증, 스크린 위의 파워포인트 화면과 학생들의 핸드폰 속의 나무위키, 포털 사이트의 한자 사전이 함께 있는 대학 강의실에서 교수자의 역할은 무엇일까? 만일 교수자와 학습자가 예전처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강의실 안팎의 언어가 동질적인 환경이라면, 이전 세대의 문해력을 전수하고, 다음 세대의 문해력을 계몽하는 것이 교수자의 역할일 수 있다. 그러나 교수자와 학습자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면? 교수자가 아날로그 매체를 모국어로 하면서 디지털 매체 공간에 이주한 이주민이고, 학습자는 자유자재로 디지털 매체를 사용하는 원주민이라면?

포스트휴먼 강의실에 단일한 문해력, 지배적 리터러시는 없다. 그렇다면 교수자와 학생의 관계도 교환과 번역의 관점에서 다시 정의해야 할 것이다. '탁월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문자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디지털 네이티브의 세대는 실어증적 상태에 이른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실어증을 겪고 있는 것은 오히려 정통 미디어 세대일지도 모른다. 매체(문자, 인터넷, 영상 매체 등)를 기술, 표현 수단, 채널(통로), 물질적 수단으로만 취급하고, 콘텐츠를 반대로 내용, 정신적인 것으로 환원한다면 '문(文)'은 매체로서 경쟁력이 없다. 따라서 새로운 맥락에서 새로운 메시지를 창출할 수 있게 하는 문학의 언어, 메타언어를 회복해야 한다.

27) 베르나르 스티글러, 김지현·박성우·조형준 옮김(2019), 위의 책, 447~449쪽.

더 나아가 우리는 이제 학습자의 리터러시만이 아니라, 교육자의 리터러시, 대학의 리터러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지금 교수자, 연구자, 학교는 학습자의 언어를 제대로 듣고 있는가? 경청하고 있는가? 선생들의 문해력은 어떠한가? 선생들 역시 문학의 언어를 잇는 채 메시지가 가리키는 대상을 영토화, 계보화 하는데 급급해 보인다.²⁸⁾ 학생들의 문해력이 언어의 과편화, 메타언어의 상실, 인접성이 억압된 상태라면, 문학 연구자들의 문해력은 언어의 공동화, 구체성의 상실, 유사성이 억압된 상태이다. 보편과 특수, 대중과 전문성의 위계적 관계, 발전론적 목적론적 교육 모델, 하향식 교육 모델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글쓰기, 문학, 더 나아가 고전과 현대, 학제 간 구별을 가능하게 해주는 특정한 이념을 해체해야 한다. 교수자들이 해체해야 하는 언어의 자동화는 바로 이것이다.²⁹⁾

19세기 초의 러다이트 운동에서처럼 새로운 미디어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자는 것이 아니다. 혹은 이편전쟁의 패배 후 밀려드는 서구 문명과 기술을 중국의 사상으로부터 분리하고, 정신을 기술적 형상의 수입과 구현에 영향받지 않은 채 고스란히 보존할 수 있다고 믿었던 동도서기(東道西器)식의 실패를 반복하지는 것도 아니다.³⁰⁾ 일군의 할리우드 SF 창작물에서처럼 기계와 인간의 공존을 턱없이 낭만적으로 미화하지는 것도 아니다. 기계를 또 다른 타자(노예, 식민지)로 삼고 인간은 이를 지배하는 주인의 관계로 설정하여 자동화의 이점만을 누릴 수 있다는 순진한 상상은 오히려 신자유주의와 자동화 사회를 가속할 뿐이다.

대학의 위기는 세계의 위기, 노동의 종말을 반영한다. 고전적 형태의 노

28) 송효섭, 「고전문학의 위기와 담론 쇄신의 실천」, 『한국고전연구』 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37~158쪽.

29) 자크 데리다, 조재룡 옮김, 『조건없는 대학』, 문학동네, 2021, 66~76쪽.

30) 허욱, 조형준 · 이철규 옮김, 『중국에서의 기술에 관한 물음 : 알고리즘 시대 인문학의 새로운 시작: 코스모테크닉스 시론』, 새물결, 2019, 98~99쪽.

동이 원격노동으로 대체됨에 따라 자동화 사회의 희생자가 넘쳐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의 중등 교육 이수자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어렵게 대학에 들어오자마자 또다시 암울한 취업시장에 뛰어들어야 하는 현실에서 학생, 교수자 모두 이러한 전망으로부터 예외가 아니다. “노동의 종말에 의해 해방된 시간”에 인간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소비자본주의가 아닌 어떤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노동을 재발명할 수 있을지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

텍스트와 지시대상의 연결, 텍스트의 맥락 파악도 어려운 학생들과 함께 언어의 언어, 문학의 메타언어를 회복하지는 것은 비현실적으로 보일지 모른다.³¹⁾ 그러나 말하기와 이야기하기가 가치있는 일이며, 여기에 내가 덧붙여질 때, 내가 이야기할만한 것임이 받아들여질 때, 그 이야기의 주인인 자신에 대한 긍정도 가능하다. 그렇다면 교수자의 문해력은 전수(傳授)나 해석(解釋)에 그쳐서는 안 된다. 강의실에서 교수자들이 해야 할 일은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건네는 것만이 아니라, 최대한 학생들이 이야기할 수 있게, 이야기의 소비자가 아닌 생산자, 주체가 될 수 있게 듣는 사람이 되는 것이다. 모든 시적 언어, 즉 문학이 교수자와 학생, 입에서 입을 연결해주는 코드, 즉 메타언어로서 재발명되어야 한다. 교수자와 학생 모두 메시지 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31) 송효섭(2008), 앞의 책, 156쪽.

참고문헌

- 강성숙, 「구비문학 관련 강좌의 현황과 교양 과목으로서의 구비문학」,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163~201쪽.
- 김보현, 황인순, 「대학 교양국어교육의 고전문학 텍스트 활용 연구 - 비평적 글쓰기를 위한 모형 구축을 중심으로 -」,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77, 한국문학이론과비평학회, 2017, 31~54쪽.
- 김영희, 「구전이야기 ‘다시쓰기(Re-Writing)’를 활용한 자기탐색 글쓰기 교육」, 『구비문학연구』 34, 구비문학회, 2012, 185~242쪽.
- 김윤정, 「대학 교양교육으로서 디지털 의사소통 연구: 유튜브 채널의 크리에이티브 화법 분석을 기반으로」,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22(1), 학습자중심교과교육학회, 2022, 399~422쪽.
- 김은아, 「물질적 전회를 통해 본 나무와 인간의 얽힘, 그리고 상황적 지식」, 『교육인류학연구』 23(2), 한국교육인류학회, 2020, 1~37쪽.
- 김정은, 「설화의 서사적 질문과 반응을 활용한 자전적 글쓰기의 과정과 의의 -MMSS 자기서사진단지를 활용한 대학 교양글쓰기 수업의 사례를 중심으로-」, 『문학치료연구』 62, 한국문학치료학회, 2022, 9~62쪽.
- 김종철, 「대학 교양교육으로서의 한국고전문학교육의 과제」,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5~30쪽.
- 류인태, 「데이터 기반의 고전 읽기 교육 - 『논어』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인문학 강의 사례를 중심으로」, 『인문논총』 78(1), 서울대학교 인문학연구원, 2021, 43~73쪽.
- 류정월, 「형식담의 수용자와 공동체」, 『구비문학연구』 60, 구비문학회, 2021, 87~118쪽.
- 마이클 페인·존 사드 편, 강우성·정소영 옮김, 『이론 이후 삶』, 민음사, 2007, 1~245쪽.
- 박화춘, 「성인의 기본역량과 기술 활용 정도가 니트 경향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성인계속교육연구』 13(2), 2022, 27~55쪽.
- 박휴용, 「포스트휴먼 시대 학습자의 존재론적 이해와 학습이론 패러다임의 변화」, 『교육방법연구』 31(1), 한국교육방법학회, 2019, 121~145쪽.
- 베르나르 스티글러, 김지현·박성우·조형준 역, 『자동화 사회 1: 알고리즘 시대 인문학과 노동의 미래』, 새물결, 2019, 1~614쪽.
- 송효섭, 『논술이 희망이다』, 기파랑, 2006, 1~240쪽.

- _____, 「고전문학의 위기와 담론 쇄신의 실천」, 『한국고전연구』 18, 한국고전연구학회, 2008, 137~158쪽.
- _____, 「고전의 소통과 교양의 형성」, 『한국고전연구』 3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5, 5~28쪽.
- _____, 『국문학과 탈형이상 : 언어학적 전회를 넘어서』, 태학사, 2018, 1~348쪽.
- 신상필, 「대학 교양으로서의 한문교육과 동아시아 한자문화권」,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31~54쪽.
- 신정아·최용호, 「자크 데리다의 자가면역성 ‘이론’과 책임의 윤리 - 종교, 정치, 문화를 중심으로」, 『프랑스학연구』 78, 프랑스학회, 2016, 133~163쪽.
- 안해정 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달성을 위한 교육개발협력 연구(V): 문해교육 실천 전략』, 2021, 22~23쪽.
- 앤젤라 네이글, 김내훈 역, 『인싸를 죽여라』, 오월의봄, 2022, 1~252쪽.
- 에바 일루즈, 김정아 역, 『감정 자본주의』, 돌베개, 2017, 1~238쪽.
- 윤예영, 「스테레오타입의 매체기호학적 연구」, 서강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9, 1~208쪽.
- _____, 「삼국유사 다시읽기와 다시쓰기를 위한 시론」, 『한국고전연구』 48, 한국고전연구학회, 2020, 163~203쪽.
- 이상봉, 「2022년 대학 교양한문 강의 목표와 교재 구성에 대한 일고」, 『漢文古典研究』 44, 한국한문고전학회, 2022, 89~114쪽.
- 이수근, 「인문교양으로서의 고전시가 강좌의 한 예」, 『한국고전연구』 22, 한국고전연구학회, 2010, 123~161쪽.
- 이지영, 「디지털 글쓰기 관련 국내 연구 동향 분석」, 『문화와 융합』 77, 한국문화융합학회, 2021, 603~624쪽.
- 자크 데리다, 조재룡 역, 『조건 없는 대학』, 문학동네, 2022, 1~144쪽.
- 정선희,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문학의 역할과 의의 - 고전소설 활용을 중심으로」, 『한국고전연구』 30, 한국고전연구학회, 2014, 397~426쪽.
- 정종현, 「국어교과서와 ‘(국)문학’ 이데올로기 - 4차 교육과정기 국어교과서의 ‘국문학사’ 인식 및 수록 작품을 중심으로」, 『한국문학연구』 41,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1, 279~307쪽.
- 조남민, 손달임, 황미경, 「대학 교양교육에서 ‘역량기반교육’의 의미와 적용 타당성에 대한 고찰」, 『교양교육연구』 16, 한국교양교육학회, 2022, 31~48쪽.
- 조현우, 「고전소설의 현재적 가치 모색과 교양교육」, 『한국고전연구』 22, 한국

- 고전연구학회, 2010, 55~82쪽.
- 진태원, 「포스트휴머니즘 또는 디지털 자본주의의 이데올로기」, 『기억과 전망』 46, 한국민주주의연구소, 2022, 222~243쪽.
- 최윤정, 「논어·맹자를 활용한 대학 인문 고전 교양교육 사례 연구」, 『東洋文化 研究』 22, 영산대학교 동양문화연구원, 2015, 197~231쪽.
- 한새해, 「고전서사문학을 활용한 전문대학 교양교육 방안」, 『한국고전연구』 55, 한국고전연구학회, 2021, 259~293쪽.
- 허욱, 조형준·이철규 역, 『중국에서의 기술에 관한 물음 : 알고리즘 시대 인문학의 새로운 시작: 코스모테크닉스 시론』, 새물결, 2019, 1~400쪽.
- 황혜진, 「OECD 성인역량조사결과에 나타난 세대 간 문해력의 차이」, 『통일인문학』 61, 건국대학교 통일인문학 인문학연구원, 2015, 585~612쪽.

ABSTRACT

Writing in Liberal Art class and Media Literacy

Yun, Yae-young

This paper examines the reality of whether the literacy of the current liberal arts classroom is in a state where narrative and classical literature can be read or rewritten using it. To this end, various communication beyond traditional meanings such as text, oral, video, and digital, and the system in which these communication are combined are viewed as media in a broad sense, and these rules of media writing are defined as literacy.

As a result of examining students' literacy and media literacy in detail through the examples of liberal arts classes at each university, substitution (metaphor), which is the main axis of language, is suppressed in each university, and the principle of contiguity(metonymy) preceding substitution in Chinese literature classes is suppressed. In the SNS space mainly used by them, excessive metaphors and broken metonymy were seen, simplifying complex situations into abstract problems or reducing them to peripheral problems by fragmenting only a part of the whole.

As such, the classroom is a place where various media coexist, imitate each other, negotiate, and collide. Existing analog literacy alone cannot describe the media literacy of classroom, and instructors cannot stay with analog literacy only. The instructor's literacy should not be limited to transfer, interpretation, enlightenment, or prescription. We should think of learners as tribes and foreign language speakers, exchange new literacy with them, and translate, create, and produce. Clear information delivery and the pursuit of computable language, on the contrary, the phenomenon of failure to reach language and fragmentation of language is a new linguistic disease in an automated society. The practicality of

liberal arts, education, and humanities lies in the 'surplus' of non-practical language, not practical language, and language, not clear and transparent. It is necessary to invent meta-language that connects instructors, students, and mouths, and restore the poetic function of language.

Key Words

liberal arts, writing, education, literacy, media, automated society, linguistic disorder, meta-language, unpractical(optium), surplus

논문투고일: 2022.10.15.

심사완료일: 2022.11.07.

게재확정일: 2022.11.08.